

3低局面의 明暗

李 鍾 燾

〈中央大學校教授·經博〉

I. 3低의 3가지 明局面

정부는 5월 8일 성장·국제수지·물가 등 금년 경제운영계획상의 목표치를 전반적으로 上向修正하는 「대외여건변화에 따른 금년도 경제전망과 주요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질성장률은 8%, 국제수지는 5억 달러 흑자, 물가는 도매물가 마이너스 2%, 소비자물가 2.5% 수준으로 각각 전망하는 등 3低의 好機活用과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낙관하였다. 이러한 낙관의 근거로서 최근 정부는 「4월 중 월간 경제동향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금년 들어 油價하락과 달러貨 약세 그리고 국제금리 하락 등 대외 경제여건의 호전에 힘입어 1/4 분기 중 産業生産과 出荷가 각각 12.3%와 11.4% 증가하였고 제조업 가동률도 81.2%로 상승하는 등 경제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보고에 따르면 한 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어 실업률이 2월의 5.4%에서 3월에는 3.9%로 떨어졌다.

한편 수출은 4월 말 현재 1백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려 전년동기비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수입은 107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6%의 증가에 그쳐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경제는 지난 1/4 분기

중 8.5% 내외의 높은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8% 성장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한은은 8.5%, KDI는 8.8% 전망). 이러한 고도경제 성장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특히 기계설비투자 증가율이 작년의 4.7%에서 금년에는 무려 14%로 높아지는 등 固定投資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영 계획상의 目標値를 上向修正한데 있어서 가장 의욕적으로 제시한 것은 국제수지의 개선 부문이다. 작년의 경우 무역수지가 3천만 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가 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우리의 경상수지는 무려 8.8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당초 정부는 무역수지 9억 달러의 흑자와 무역외 및 이전수지 9억 달러의 적자를 전망함으로써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세웠었다. 그런데 이번의 상향수정에 있어서 정부는 무역수지가 무려 16억 달러의 흑자 그리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가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5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금년도 경제운영을 낙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高原油價, 高國際金利,

高달러 가치 등 지금까지 우리 經濟를 괴롭혀 왔던 세계경제의 불리한 환경이 사라지고 소위 3 低局面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이 好機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원유가 하락, 국제금리 인하, 달러가치 저하 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서 연유되는 3 低의 세 가지 밝은 국면인 고도성장달성, 고용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의 여력을 기계산업, 부품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질적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 이렇게 밝은 전망을 보이게 한 3 低局面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원유가격의 경우 작년 중 우리의 평균 수입가격이 배럴당 26.7 달러였는데 지난 4월에는 13 달러로서 무려 절반 이상 수준으로 폭락하여 국제수지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는 80년대 매년 60억 달러(2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것이 3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앞서서 30억 달러 정도를 벌게된 셈이다. 정부는 금년의 원유가를 15 달러, 87~89년에는 18 달러, 90~91년에는 20 달러 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5월 8일 7개국 정상회담 이후의 日本經濟를 전망함에 있어서 금년의 원유가격을 16 달러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게 전망하고 있다.

둘째, 국제금융의 逆流현상을 야기시켰던 국제 고금리가 작년 9월 G5 회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금리는(LIBO 金利, 3개월 기준) 작년 3월 9.4%에서 작년 말에는 8.1% 그리고 지난 4월 말에는 6.8%로 각각 하락하였으며 금년 4개월간 무려 2.3%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특히 미국의 우대금리는 작년 말의 9%에서 4월 말 현재 7%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금리 역시 6.5%에서 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국제금리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

망이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하튼 최근의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채의 약 330억 달러가 변동금리부 채무이므로 국제금리가 2% 포인트만 하락하여도 연간 7억 달러의 대외 이자지급 감소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째, 3 低好機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달러화의 약세 문제는 정확히 표현하여 엔貨 強勢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對달러의 원화 환율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對엔화 환율만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엔貨 強勢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도형의 국내 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결국 성장·고용·국제수지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II. 日本의 3 低 對應戰略

일본 엔貨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작년 9월 달러당 236.1엔에서 계속 그 가치가 상승하여 4월 말에는 무려 168.8엔을 기록하여 반년만에 67.3엔(28.5%)이 올랐다. 특히 5월 초 7개국 정상회담을 맞이하여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일본은 전망하였는데 반대로 일본엔貨 강세의 저지에 실패하여 5월 8일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엔貨의 대미달러 환율은 1달러당 164.1엔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의 대엔貨 환율은 100엔당 작년 말 443.7원에서 계속 상승하여 5월 8일 현재 540.6원으로 무려 22%가 올랐으며 엔貨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9월 22일에 비하면 무려 46.6%나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円高弗落의 국제통화질서 변화가 당초 우리의 수출증대에 결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는 성급하게 경기상승을 낙관하였지만 엔貨 강세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최근 그 明局面과 동시에 暗局面을 염려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과연 엔貨 강세는 어느 선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인가? 동경 7개국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회의를 주최한 일본은 170 엔선을 대미달러 정책환율로 생각한 것 같다. 특히 7개국 정상회담의 經濟宣言인 「各國經濟政策의 相互監視 및 協調」를 발표한 후에도 일본은 엔貨 강세의 저지에 다소 희망적이었다.

왜냐 하면 일본의 정제는 물론이고 재계에 서도 각국 경제정책의 상호감시 및 협조라고 하는 이 「경제선언」이 급격한 엔貨 강세에 의한 최근의 국제통화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거라고 我田引水式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6개국 정상들은 각국 경제정책의 상호감시 및 협조라고 하는 이 경제선언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일본의 지나친 무역흑자로 말미암은 세계무역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후자의 論理에 따라 7개국 정상회담 후에도 엔貨 강세는 계속되었고 여기에 일본 정부는 크게 당황하여 엔貨의 대미달러 환율의 재검토는 물론이고 일본경제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왜냐 하면 새로운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3低局面이 우리보다 일본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① 円高弗落은 자국통화의 문제이며 ② 低原油價는 円高현상으로 2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③ 低國際金利는 低國內金利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3低局面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일본 정부는 對美貿易 黑字의 확대에 따른 엔貨 強勢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① 재정정책의 機動的 運用 ② 換差益의 積極的 활용 ③ 輸出産業의 海外立地 등 새로운 대응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구체적인 배경으로서 일본경제신문사의 總合經濟 Data Bank System(NEEDS)은 7개국 정상회담 이후 일본 경제의 모습을 <表-1>에서와 같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전망하였다.

즉 同연구기관은 일본 엔貨의 대미달러 환율

을 ① 165엔의 경우와 ② 150엔의 경우로 나누어 A Macro-Model 분석 B 산업연관분석 C 기업재무분석 등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엔貨의 대미달러 환율이 165 円으로 정착할 경우 일본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2.3%로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런데 성장률이 감소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8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엔貨의 대미달러 환율이 150 円으로 정착될 경우 실질 성장률은 1.5%로 크게 떨어지지만 무역수지는 오히려 825억 달러로 증가할

7개국 정상회담 이후 日本經濟 展望

<表-1>

A Macro-Model 分析

< 1986年, 前年同期比 上昇率(%)>

項 目	1 달러 (165 円)	1 달러 (150 円)
實質經濟成長率	2.3	1.5
失業率	2.83	2.86
消費者物價上昇率	1.0	0.4
金利(%)	4.14	4.03
通貨供給量(M ₂)	7.6	7.3
財政赤字의 對 GNP比率(%)	3.61	3.76
貿易收支(억달러)	818	825
經常收支(＄)	748	734
外貨準備高(＄)	346	322

資料: 日本經濟新聞社, 1986年 5月 8日.

B 産業聯關分析(實質生産額 豫測)

< 1986年, 前年同期比 上昇率(%)>

項 目	1 달러 = 165 円	1 달러 = 150 円
섬	△0.3	△1.1
화	△0.1	△1.3
철	△1.8	△3.8
비철 금속	△2.2	△4.8
일반기계	1.5	△0.1
전기기계	2.8	0.7
조선	△2.6	△5.4
자동차	1.0	△1.0
정밀기계	2.1	△0.2
서비스	3.4	3.2

資料: 日本經濟新聞社, 1986年 5月 8日.

註: △는 감소 표시

◎. 企業財務分析 < 日本全國上場製造業 977 社, 1985 年 比較 >
< 1986 年, 前年同期比 上昇率(%) >

項 目	1 달러 (165 円)	1 달러 (150 円)
円高影響額(兆円)	△ 3.05	△ 3.69
円高影響度 (利子支拂後 事業利益比(%))	△ 44.7	△ 54.2
赤字轉落可能社數	100	118
50% 以上の減益可能社數	175	191

資料: 日本經濟新聞社, 1986 年 5 月 8 日.

註: ① △는 赤字表示 ② 円高影響額は 작년 실적 (1 달러 = 238.5 円)의 企業利益이 円高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엔貨 강세로 말미암아 일본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엔貨 강세의 J 커브效果 (수출의 달러금액이 증가하는 것)가 발생하여 무역수지의 흑자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이다. 여하튼 달러貨와 円貨의 환율조작만으로 美日間の 貿易不均衡이 시정되기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엔貨 강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円高弗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산업별로 본 실질생산액은 1 달러당 165 円이 될 경우 철강·조선 등 素材型工業 혹은 비가격경쟁력이 약한 수출산업이 특히 감소하며 전기기계·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은 다소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종래에 비하여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1 달러당 150 円이 될 경우 일반기계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제조업의 생산액은 감소할 것이며 서비스업만이 다소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日本全國의 上場製造業 977 個社에 대하여 1985 년의 엔貨 환율(1 달러 = 238.5 엔)이 165 엔이었다고 가정하여 그 收益에 미친 영향을 試算하여 보면 엔貨 강세에 따라 이자지불 후의 사업이익은 약 3 조엔이 감소하게 되고 100 개사가 경영적자로 전락하게 된다. 수익률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도요다자동차로서 이

자지불 후의 사업이익이 무려 4,100 억엔, 日産自動車는 2,900 억엔, 本田技研工業은 2,000 억엔 등 주로 수출기업의 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일본정부는 급격한 엔貨 강세에서 나타나는 국내 산업의 타격을 방지하고 7 개국 정상회담의 外壓을 막기 위하여 經濟運營路線의 전면적인 전환을 서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Ⅲ. 3 低의 3 가지 暗局面

작년 9월 22일 이후 5월 초까지 달러는 엔화에 대하여 31.1%나 떨어졌지만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0.66% 내리는데 그친 반면 원화의 엔貨 등 다른 통화에 대한 환율은 40~50% 이상이나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원화 환율의 굴곡은 바로 정부가 현재 환율운영 방향을 오직 수출증대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즉 달러에 대해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달러의 하락폭만큼 원화 환율을 내리지 않으면서 엔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선 강세폭만큼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円高弗落과 이의 對원화 환율에 대한 屈折反映은 국별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대외 통상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첫째로 3 低의 중요한 暗局面인 對日貿易赤字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대로 對美貿易黑字는 계속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즉 최근 한은은 금년 평균 엔貨 시세를 달러당 180 엔으로 상정할 경우 對日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51억 달러에 그치는 반면 대일 수입은 무려 22.2%가 증가한 92억 달러에 달하여 대일 무역수지는 4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최근 7 개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엔貨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는 45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미 수출은 일본 상품에 대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1/4 분기 중에 무려 작년동기대비 32%나 증가하여 6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3低局面이 계속됨에 따라 外債와 通貨가 증가하여 경제성장과 국제수지의 개선에서 야기된 경기국면의 호황을 잠식하고 있다.

금년 3월 현재 외채총액은 469.1억 달러로 지난 연말의 467.6억 달러보다 1.5억 달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엔화 가치의 상승에 따라(10.1% 상승) 엔화표시외채(12.5%)를 달러화로 환산한 데 따른 환차손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지난 85년 중에도 엔화 가치가 20.1%나 올라 우리는 6.3억 달러의 외채증가를 가져왔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엔화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년 1년간 추가원금부담만도 9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매일 무역적자와 외채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부문에서 인플레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經常收支가 작년에 8.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무려 5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금년 중 약 1조 2천억원 정도의 통화화 작년보다 환수되지 못하여 국제수지 흑자에서 오는 외환인플레이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화금융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통화당국은 금년 초부터 3低현상에 따른 경기활성화가 산업별·업종별로 심한 차이를 보여서인지는 모르지만 긴축과 완화를 자주 반복함으로써 통화금융의 수급균형이 불투명하다. 더우기 몇 년전부터 서울올림픽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활성화에 따른 산업시설투자가 여기에 겹쳐서 총수요의 팽창이 산업생산지수의 상승 이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수요와 경기활성화 자금수요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요 등 예상외로 커질 총수요의 관리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3低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국내경기가 활성화되고 輸出入 單價가 上昇하여 國內物價가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불가피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원화의 대엔화 환율이 폭등하

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단가가 벌써 30% 이상 올라 국내물가 상승의 압력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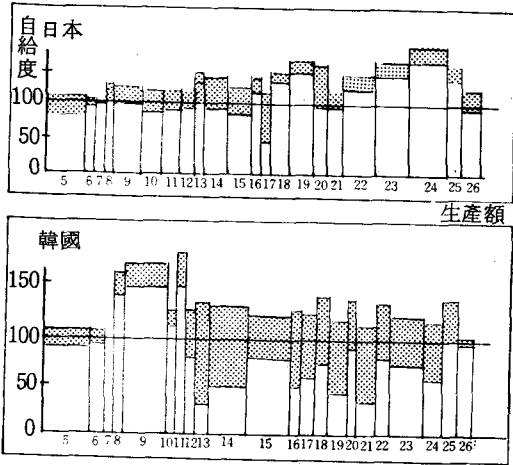
최근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달러당 환율이 180 엔선일 경우 수입물가가 8%, 국내도매물가가 2~3%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달러당 환율이 연평균 165 엔선을 넘어 선다면 원유가 하락에 따른 우리의 불가하락 요인은 완전히 소멸되어 3低의 중요한 호재 하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3低時代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는 성장·국제수지·고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구체화 되면서부터 매일 무역불균형 확대, 통화와 외채의 증가 그리고 물가고 등 어두운 면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밝은 면의 파급효과를 잠식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초 기대하였던 3低현상 이상으로 원유가와 국제금리와 달러가 더욱 떨어지고 있는데 비하여 그 효과는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3低時代의 明局面을 잠식하는 주범은 무엇보다도 매일 무역의 심한 역조인 것이며 이는 곧 韓日貿易의 收支論的인 次元의 문제가 아니고 産業·技術의 수직적 국제분업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3低時代의 暗局面을 해소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조정을 통한 加工型工業·部品産業·中小企業을 적극 육성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함은 물론이고 기술제품 수출을 확대하여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그림-1>의 한일간 Leontief의 Sky line-map에서와 같이 自給度가 낮고 스카이 라인 굴곡이 심한 輸入依存的인 製造業을 적극 육성하여 輸入代替 效果를 높임으로써 매일 의존적인 분업체제와 매일 무역적자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自給度 100% 이하의 수입의존도를 먼저 해소시키고 수입의존적인 수출 역시 점차 자급적 수출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 유발생산 효



資料：日本 行政管理廳「産業聯關表 1980」, 1984 年, Bank of Korea, 1980 Input-Output Table, Seoul, Korea, 1983.

註：5：加工食品, 6：飲料, 7：煙草, 8：纖維絲, 9：纖維·皮革製品, 10：목재 관련제품, 11：펄프·紙, 12：인쇄·출판, 13：고무제품, 14：化學製品, 15：石油製品, 16：석탄제품, 17：비금속 鑛產品, 18：鐵鋼, 19：鐵鋼 1 次製品, 20：非鐵金屬製品, 21：金屬製品, 22：一般機械, 23：電氣機械, 24：輸送機械, 25：정밀기계, 26：雜工業製品.

※ 業種別 自給度幅은 총생산액에 대한比率로 표시하였음, 點線 上은 수출의준도이며 下는 수입의준도임.

<그림-1> 韓·日 SKY LINE 比較(1980年)

과가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의 對日 漏出率이 日本의 국내 유발생산 效果의 對韓 漏出率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國産化 體系를 강화하고 일본의 경제협력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즉 <表-2>에서와 같이 일본의 대한 누출률이 평균 0.29%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우리의 대일 누출률은 무려 평균 7.57% 로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평균 대일 누출률을 크게 상회하는 업종(예 ; 정밀, 수송기계, 금속제품 등)부터 국산화작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는 대일 의존적인 공업구조를 개편하여야만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할 수 있는데 이

韓日間 誘發生産 效果의 漏出率 比較

<表-2>

(單位：%)

業 種	韓國의 對日漏出率		日本의 對韓漏出率	
	1970	1980	1970	1980
農林·水産	1.80	2.32	0.05	0.18
石 油	3.08	3.55	0.05	0.26
金 屬 鑛 物	3.38	4.24	0.03	0.20
非金屬鑛物	2.17	5.47	0.03	0.23
加工食品	2.46	2.16	0.04	0.34
飲 料	1.98	2.20	0.04	0.29
煙 草	3.12	2.38	0.01	0.11
纖 維 絲	1.46	7.89	0.01	0.84
纖維·皮革製品	16.23	8.31	0.32	0.01
木材關聯製品	4.06	3.15	0.09	0.19
펄 프 · 紙	0.85	7.45	0.04	0.22
印刷·出版	5.14	4.85	0.03	0.14
고 무 製 品	1.72	7.87	0.08	0.39
化 學 製 品	1.57	11.28	0.07	0.29
石 油 製 品	3.60	1.51	0.03	0.08
石 炭 製 品	2.22	2.46	0.21	0.18
非金屬鑛產品	3.87	3.61	0.12	0.12
鐵 鋼	12.55	12.19	0.14	0.50
鐵鋼 1 次製品	23.89	13.53	0.08	0.35
非鐵金屬製品	8.94	8.43	0.23	0.23
金 屬 製 品	18.88	14.82	0.07	0.28
一 般 機 械	13.57	12.48	0.04	0.24
電 氣 機 械	14.01	13.76	0.07	0.30
輸 送 機 械	19.68	14.92	0.04	0.21
精 密 機 械	21.75	17.98	0.06	0.33
雜 工 業 品	16.80	8.09	0.17	0.37
合 計	8.05	7.57	0.08	0.29

資料：日本行政管理廳「産業聯關表 1980」, 1984 年 Bank of Korea, 1980 Input-Output Table, Seoul, Korea, 1983.

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技術水準(미국:100, 일본:87, 한국:6)을 높이고 技術開發力指數(미국:100, 일본:50, 한국:3)를 향상시켜 종래의 加工原料輸入 中心에서 基礎原料輸入 中心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은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貿易構造·産業構造 그리고 技術構造의 근본적인 개편이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3 低時代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